

이재명 “가족 등 여러 의혹 정리하면 좋겠다”

尹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수용 압박 첫 ‘영수회담’서 거부권·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언급尹대통령 6번 이상 고개 끄덕이며 “예상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수용을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압박한 것이라 분석이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재외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

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0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흑어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 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연합뉴스

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

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취

재하러 온 풀기자가 모두발언 전 대통령실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려 하자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 드릴 말씀 써왔다”며 기자들의 퇴장을 막은 뒤 “대통령님 말씀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

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먼저 발언할 것을 권했다.

윤 대통령의 권유를 받은 이 대표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A4 종이를 꺼내 작성한 듯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도 중 6번 이상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영수회담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회담은 당초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시간 1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김진수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상임고문

6월 전당대회까지 2개월간 여당 이끌어 야당들 “변화·혁신 포기” 한목소리 비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대표 출신의 원로인 황우여(77·사진) 당 상임고문이 29일 지명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린 전당대회까지 약 2개월 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고문에 대해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분이요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월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진정 국민의힘은 국민이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황 전 부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



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 유기와 다를 없다”고 꼬아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느끼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여권이 선거 이후 풀어야 할 사안들을 하나도 풀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8일 만에 찾아낸 구원투수로, 오는 7월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당을 이끌어 예정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 사정이 참 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황 비대위원장의 무운을 빈다”며 “임기가 비록 짧긴 하지만, 총선 직후 중요한 시기인 만큼 흔들리는 여당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조국, ‘한동훈 특검법’ 의지 거듭 확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이 한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건 정치공학 적 사고다. 체급이 헤비급이든 페더급

이든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

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 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래 10석이었던 기준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 20석으로 올랐다. 유신의 잔재”라며 “민주당이 먼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尹 지지율 30.2%...재작년 8월 이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재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뢰로 지난 2·2·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2%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월 1주차 조사에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32.6%), 3주차(32.3%),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2022년 8월 1주차(20.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6%p 오른 66.9%, ‘잘 모름’은 2.8%였다.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

보다 1.7%p 하락했고, 민주당은 0.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3.5%,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무당층은 5.0%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NEW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